

# 다문화 가족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관련 변인

Factors of The Married Couple Influencing  
Marital Satisfactio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Husband

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과  
조 교수 강기정\*  
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과  
조 교수 변미희\*\*

Dept. of Christian Welfare. Beakseok Univ.  
*Assistant Professor: Kang, ki jung*  
Dept. of Christian Welfare. Beakseok Univ.  
*Assistant Professor: Byun, mi hee*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marital satisfaction of husbands in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will provide basic data to develop the policies and services related to multicultural famili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method from 99 multicultural couples. Analysis of the data consisted of t-tests to compare the psychological characters of the couple and multiple regression to analyze the independent effects of the related variable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elf-esteem, depression,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re significantly higher for the wife than for the husband. Second, regarding the influence of the

\* 주저자: 강기정 (kkj@bu.ac.kr)

\*\* 교신저자: 변미희 (bmh@bu.ac.kr)

relevant factors on the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include the gap in the couple's ages, the husband's self-esteem and sex role attitude, and the wife's sex role attitude, godiness, and marital satisfaction.

**Key Words :** 다문화 가족 남편(husband in a multicultural family), 다문화 가족 아내(wife in a multicultural family),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다문화 수용태도(mult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성역할 태도(sex role attitude)

## I. 서론

2008년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는 14만 4,386 명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하였고, 이 중 여성이 88.4%를 차지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출생성비의 불균형과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이 결혼으로 인한 사회활동의 제약, 가사노동, 자녀 양육의 부담 등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이다(추현화 외, 2008). 사실 다문화 가족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문화적 다양성의 확장 and 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은 물론 다문화적 감수성을 갖춘 글로벌 인적 자원이 증가하여 사회적·국가적 성장에 기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은 상업적인 결혼중개업소에 의해 그야말로 신부를 수입하여 국제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혼 생활에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이 아닌 일반 가족의 경우에도 결혼으로 형성된 가족이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경제적 문제, 자녀출산과 양육문제, 심리와 성격 차이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다문화 가족의 경우 이러한 일반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에 더하여 언어소통의 문제와 상대방 국가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결혼 생활에 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2002년 1,866건에서 2007년 8,828건으로 급증하였다(통계청, 2008). 따라서 다문화 가족이 결혼생활에 잘 적응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 결혼만족도와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다문화 가족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한국인 남편과 국제 결혼한 외국인 아내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자녀에 대한 연구(신혜정, 2007; 정현영, 2006; 이소희·최운선, 2008; 이영주, 2008)와 남편에 대한 연구(안현정, 2003; 장온정, 2007, 추현화 외, 2008)는 소수에 불과하다. 실제로 다문화 가족 아내에 관한 연구는 다수가 있고 내용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보건복지부, 2005; 설동훈 외, 2006; 정기선 외 2007)와 다문화 가족 아내가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 예를 들면 언어문제, 심리부적응, 문화차이, 가족갈등, 빈곤 문제 등을 다룬 연구(왕한석 외, 2005; 한건수, 2006; 김이선 외, 2006)가 있다. 두 번째로 다문화 가족 아내의 결혼적응이나 결혼만족도, 생활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함으로써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들의 한국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양순미, 2006; 김연수, 2007; 김진희·박옥임, 2008; 추현화 외, 2008; 정천석·강기정 2009).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 아내의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한 자활모델로서의 창업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윤인

진·송영호, 200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 가족이 결혼 후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결혼생활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의 남편, 아내, 자녀 등 모든 구성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선행연구들은 다문화 가족 아내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의 아내 못지않게, 국제결혼 후 의사소통도 안 되고, 문화도 전혀 다른 외국인 아내와 결혼생활을 해야 하는 한국인 남편 역시 결혼적응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들의 결혼만족과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는 안현정(2003), 장운정(2007), 추현화 외(2008) 등 소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들 선행연구들은 다문화 가족 남편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남편과 관련된 요인만 탐색하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편과 아내와 관련된 요인 모두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남편 특성요인과 아내 특성 요인을 조사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의 결혼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가족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결혼만족도는 결혼적응, 결혼안정성, 결혼의 질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Beach et al., 2003), 학자에 따라 초점을 두는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를 포함한다. 객관적 평가가 결혼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과의 일치정도에 대한 측정 혹은 개인의 기대와 결혼만족도 사이의

비교이며, 주관적인 평가는 개인이 결혼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만족, 행복 등과 같은 주관적 감정이다(정승혜, 1987). 결혼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주관적인 차원에서 결혼만족도를 정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영숙·박경란(2009)은 배우자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정도라고 정의하였고, 조은경·정혜정(2009)은 한 개인이 자신의 결혼생활을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만족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주관적 차원에서 결혼만족도를 정의하고, 다문화가족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쉽게도 다문화 가족 부부나 남편을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족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남편 요인을 다문화 가족 남편에 대한 연구와 일반 가족 남편에 대한 연구를 모두 살펴본다.

먼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심리적 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들 수 있다. 남성들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결혼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증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며,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추현화 외, 2008). 일반 가족을 연구한 최규련(1995)은 자아존중감과 유사한 개념인 자아개념이 결혼적응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결혼적응과 정적 관계를 보인다고 보고 하였다. 조유리(2000) 연구에서는 부부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결혼 적응이 높다고 하였다. 결혼이주 여성 남편을 대상으로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추현화 외(2008)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는 Whisman (2004) 등의 연구에서 우울이 아내와 남편에게서 모두 결혼만족도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우울은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우울한 배우자는 일상생활에서의 부부간에 비난이나 폭언과 같은 부정적인 의사소통이 많고, 여가나 취미 활동을 즐기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을 뿐 아니라 서로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회가 적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이해받고 수용된다는 느낌이 적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Rehman(2008) 등의 연구에서도 아내의 우울이 심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부부클리닉 방문부부의 심리적 요인과 결혼만족도를 연구한 공성숙(2008)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경우 우울 증상이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아내의 경우는 우울이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역할태도가 있는데,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는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1980년대부터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며, 비교적 최근에 맞벌이 가족 남편을 연구한 이은희(2002)의 연구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닐수록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안현정(2003)의 연구에서도 성역할태도가 남편, 아내 모두 근대적인 성역할 집단의 결혼적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국제 결혼한 한국 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해 연구한 장은정(2007)의 연구에서는 결혼생활 적응에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결혼적응을 연구한 추현화 외(2008)의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가 결혼적응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남편과 아내의 다문화 수용태도와 자문화 전달태도 등 문화적응태도가 있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은 결혼 전에 외국인 아내와의 문화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결혼 후에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면서, 본인은 배우자 국가의 문화를 배우거나 이해하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다(한건수, 2006). 즉 외국인 아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서 한국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외국인 여성들은 자국문화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주변의 반응을 접하게 되고(김형균, 2007), 출신국가를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거나 속이도록 강요받거나 또는 스스로 출신국가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추현화 외, 2008). 이와 같이 다문화 가족의 남편이 배우자 국가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배우자 국가와 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경우 부부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부갈등은 남편의 결혼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부부를 연구대상으로 한 안현정(2003)의 연구에서 남편의 타문화생활의 적응이 결혼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결혼한 한국 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장은정(2007)의 연구에서 자문화 전달태도가 결혼적응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남편과 아내의 다문화 수용태도와 자문화 전달태도 등 문화적응태도를 포함하였다.

이상의 변인들은 남편과 아내 모두 조사하였으며,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공성숙, 2008), 본 연구에서도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독립변인에 포함하였다. 다문화 가족의 경우 외

국인 아내의 부부관계만족 수준과 아내의 한국 생활적응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천석·강기정, 2008), 종교적인 이유로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선택한 외국인 여성이 있으므로(전만길, 2005), 아내의 한국생활적응과 신앙성숙도도 독립변인에 포함하였다.

가 61.4%, 30대가 32.5%로 20~30대가 많았다. 학력은 남편은 고졸 56.6%, 대졸 26.5%, 아내는 고졸 35.8%, 대졸 31.3%로 남편과 아내 모두 고졸 이상이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남편 51.9%, 아내 30.9%로 가장 많았고, 불교가 남편 21.0%, 아내 38.23%로 두 번째로 많았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다문화 가족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남편 특성 요인과 아내 특성 요인을 연구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의 결혼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가족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다문화 가족 부부의 심리적 특성은 어떠한가?
- 2) 다문화 가족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변인은 어떠한가?

#### 2.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 남성이 결혼한 다문화 가족 99쌍을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다문화 가족 아내의 경우는 한국어 강사가 8~10명씩 집단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남편의 경우는 각 가정에서 조사자 없이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에 응답하여, 무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편은 40대가 53.6%, 30대 31.0%로 30~40대가 많았고, 아내는 20대 이하

<표 1> 조사 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1)

분 류	남편		아내		
	빈도	%	빈도	%	
연령	20대	2	2.4	51	61.4
	30대	26	31.0	27	32.5
	40대	45	53.6	4	4.8
	50대	10	11.9	1	1.2
	60대 이상	1	1.2	-	-
	합계	84	100.0	83	100.0
학력	무학	1	1.2	-	-
	초졸	3	3.6	-	-
	중졸	8	9.6	5	7.5
	고졸	47	56.6	24	35.8
	대졸	22	26.5	21	31.3
	대학원 이상	2	2.4	17	25.4
	합계	83	100.0	67	100.0
종교	무교	42	51.9	21	30.9
	기독교	8	9.9	3	4.4
	가톨릭	8	9.9	15	22.1
	불교	17	21.0	26	38.2
	기타	6	7.4	3	4.4
	합계	81	100.0	68	100.0
직업	무직	3	3.6	37	78.7
	전문직	1	1.2	-	-
	기술직	28	33.3	1	2.1
	사무직	5	6.0	-	-
	교직	-	-	1	2.1
	자영업	20	23.8	2	4.3
	생산직	12	14.3	1	2.1
	기타	15	17.9	5	10.6
	합계	84	100.0	47	100.0

직업은 남편은 기술직 33.3%, 자영업 23.8%, 생산직 14.3% 순으로 나타났고, 아내는 78.7%가 주부로 나타났다. 월소득은 151만원에서 250만원이 56.2%, 150만원 이하가 20.5%로 나타났고, 자녀수는 1명이 56.9%, 2명이 27.5%, 3명이 15.7%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2)

분 류		빈도	%
연령 차이	0 ~ 5년	12	14.5
	5 ~ 10년	14	16.9
	11 ~ 15년	24	28.9
	16 ~ 20년	23	27.7
	21년 이상	10	12.0
	합계	73	100.0
월소득	150만원 이하	15	20.5
	151 ~ 250만원	41	56.2
	251 ~ 250만원	13	17.8
	251 ~ 350만원	2	2.7
	351만원 이상	2	2.7
	합계	73	100.0
자녀 수	1	29	56.9
	2	14	27.5
	3	8	15.7
	합계	51	100.0

조사 대상의 국제결혼 관련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는데, 결혼기간은 2년 이하가 43.5%, 4년 이상이 26.9%, 2년에서 3년이 25.6%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방법은 결혼중개업소를 통해서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구나 주변소개, 가족, 친척 소개, 먼저 국제결혼한 사람 등 지인(知人) 소개가 30.1%로 나타났고, 종교단체를 통해서가 12.5%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결혼중개업소를 이용한 경우는 37.5%,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62.5%로 나타났다. 아내의 모국 방문 횟수는 없음이

<표 2> 조사 대상의 국제 결혼 관련 특성

분 류		빈도	%
결혼기간	12개월 이하	17	21.8
	13 ~ 24개월	17	21.8
	25 ~ 36개월	20	25.6
	37 ~ 48개월	3	3.8
	49개월 이상	21	26.9
	합계	78	100.0
결혼방법	결혼 중개업소 이용	30	37.5
	종교단체의 소개	10	12.5
	친구나 주변소개	13	16.3
	가족, 친척소개	8	10.0
	먼저 국제결혼한 사람 소개	3	3.8
	직접 만남	15	18.8
	기타	1	1.3
	합계	80	100.0
모국 방문 횟수	없음	30	38.5
	1회	15	19.2
	2회	17	21.8
	3회 이상	16	20.5
	합계	78	100.0
	국적 취득	취득	28
미취득		47	62.7
합계		75	100.0

38.5%로 나타났고, 1회 19.2%, 2회 21.8%로 나타났다.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 아내는 37.3%, 미취득은 62.7%로 나타났다.

### 3. 조사 절차

본 조사는 C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99쌍을 2009년 1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사하였다. 본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은 한국인 남편과 국제결혼 한 외국인 아내이다. 연구자 중 1인이 기관을 방문하여 다

문화가족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가정사 1명과 한국어강사 3명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등을 설명하고 설문지 작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을 받은 한국어강사들이 다문화 가족 여성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구했다. 한국어교육이 끝난 후 다문화 가족 여성 8~10명에게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 중에서 다문화 가족 여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중립적인 언어로 설명해 주도록 하였다. 다문화 가족의 남편 설문지는 한국어강사가 전화로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다문화 가족 남편 설문지는 다문화 가족 여성을 통해 가정으로 배포한 후 남편이 직접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 4. 조사 도구

조사도구는 질문지를 택하였으며,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인 다문화 가족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Chung(2004)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한 RKMSS(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RKMSS는 총 4개 문항으로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응답의 편의성을 위해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4점~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자에 의해 재구성된 결혼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4이다.

본 연구의 통제 변인은 다문화 가족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종교, 학력, 직업, 자녀수, 월소득 등)과 다문화 가족의 국제결혼 관련 특성(결혼 기간, 결혼 방법, 결혼 후 모국 방문 횟수, 국적 취득 여부) 등이다.

다문화 가족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는 부부의 자아존중감, 우울, 성역할 태도, 문화적응태도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아내의 경우는 한국생활적응, 신앙성숙도, 결혼만족도를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자아존중감은 로젠버그(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상균(1999)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로젠버그(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들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자존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4이다.

다문화 가족 부부의 우울수준은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의 축약형(CESD-10)을 사용하였다. CES-D 척도의 원 문항은 20문항이나 축약형은 10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주 동안 느낀 정도를 1점(‘극히 드물게(1일 이하)’)에서 4점(‘거의 대부분(5~7일)’)까지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성우·신원식(2005)이 번역한 CES-D 척도의 문항 중 축약형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0점~40점이며, 문항들 가운데 긍정적인 내용의 문항들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우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1이다.

성역할 태도는 김경신(2006)이 개발한 가족 가치관 척도를 기초로 정천석·강기정(2008)이 다문화 가족 아내의 설문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7문항이며 4점 리커트 척도이다.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태도를, 점수가 낮을수록 현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역할태도의 신뢰도 계수는 .68이다.

문화적응태도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부부사이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다문화 수용태도는 상대국가의 문화에 대해 알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자문화 전달태도는 출신 국가 문화를 상대에게 알려주고 적응시키기 위한 노력 및 태도를 의미한다. 문화내용의 범주에는 음식, 언어, 생활방식, 풍습이나 예절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문화적응태도 척도는 장은정(2007)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화적응태도를 위한 문항으로 2개의 하위영역인 다문화 수용태도에 관한 6문항과 자문화 전달태도에 관한 6문항으로, 총 12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태도와 자문화 전달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화적응 태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8이다.

한국생활적응은 다문화 가족 아내에게만 실시하였고, 정천석(2008)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생활적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용은 한국어 능통정도, 풍속, 한국사람에 대한 친밀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생활적응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8이다.

신앙성숙도 역시 다문화 가족 아내에게만 실시하였는데, 이는 종교적인 이유로 국제 결혼을 선택한 여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앙성숙도는 장은정(2008) 연구의 사회적 지지 척도 중에서 신앙지지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앙은 내가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다'와 같은 신앙의 지지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앙성숙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성숙도의 신뢰도 계수는 .89이다.

#### 5. 자료분석 방법

본 조사의 모든 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

Win 12.0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 가정과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 다문화 가족 부부의 심리적 특성(자아존중감, 우울, 신앙성숙도, 성역할태도, 다문화 수용태도, 자문화전달태도, 결혼만족도)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t 검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 다문화 가족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통제변인은 종속변인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만 회귀분석시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 대상 다문화 가족 부부의 심리적 특성

다문화 가족 남편과 아내의 심리적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 t검정으로 분석하였으며, <표 3>에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족 남편과 아내의 심리적 특성 중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인은 자아존중감, 우울과 다문화 수용태도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아내는 2.85, 남편은 2.54로 나타나, 중간점인 2점 보다 높게 나타났고, 아내가 남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우울의 경우는 아내 1.92, 남편 1.79로 나타나, 중간점인 2점 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아내가 남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 태도의 경우는 아내 2.88, 남편 2.11로 나타나, 중간점인 2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고, 아내가 남편보다 다문화 수용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성역할 태도, 자문화 전달태도, 결혼만족도 등은 남편과 아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태도



의 경우 남편 2.12, 아내 2.22로 중간점인 2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혼만족도는 남편 3.64, 아내 3.59 등으로 중간점인 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 가족의 아내만 조사한 신앙생활만족도와 한국생활적응의 경우 각각 2.44, 2.73으로 나타나 중간점인 2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표 3> 조사 대상 다문화 가족 부부의 심리적 특성

변인		평균	표준 편차	t 값
자아존중감	남편	2.54	.28	-6.410***
	아내	2.85	.40	
우울	남편	1.79	.35	-2.067*
	아내	1.92	.52	
성역할 태도	남편	2.12	.46	-1.830
	아내	2.22	.56	
다문화 수용태도	남편	2.11	.83	-8.591***
	아내	2.88	.71	
자문화 전달태도	남편	2.13	.74	-1.394
	아내	2.25	.72	
결혼만족도	남편	3.64	.74	.641
	아내	3.59	.70	
신앙성숙도	아내	2.44	.77	
한국생활적응	아내	2.73	.44	

\* p < .05, \*\*\* p < .001

## 2. 다문화 가족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변인

다문화 가족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분석에 앞서 통제변인은 종속변인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상관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만 회귀분석 시 사용하였다.

회귀 분석시 DW(Durbin Watson) 계수로 회귀 가정의 만족여부를 파악하였는데, DW (Durbin Watson) 계수(DW 값 2 기준)가 1.708로 잔차간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 변수간의 다중공선성(Multi Collinearity)은 VIF값을 통해 살펴보았는데(VIF 값 10 기준), 모든 변수의 VIF값이 2.5를 넘지 않아,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형 1은 통제변인을 투입하였는데, 분석결과 다문화 가족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 중개업소 이용 여부( $\beta = -.437$ )로 나타났다( $F = 6.332, p < .001, Adj. R^2 = .208$ ). 이러한 결과는 결혼 중개업소를 이용하여 결혼한 경우가 친구, 가족, 친척 등 지인(知人)이나 종교단체를 통해 결혼한 경우보다 다문화 가족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다.

모형 2에서는 다문화 가족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통제변인과 남편 관련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결혼 중개업소 이용여부( $\beta = -.283$ )와 남편 관련 변인중에서 성역할 태도( $\beta = -.314$ ), 남편의 자문화 전달 태도 ( $\beta = .294$ )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5.714, p < .001, Adj. R^2 = .382$ ). 이러한 결과는 결혼 중개업소를 이용하여 결혼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으며, 남편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남편의 자문화 전달태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다. 모형 2는 모형 1보다 설명력이 .216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는 다문화 가족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통제 변인, 남편 관련 변인, 아내 관련 변인을 투입

〈표 4〉 다문화 가족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변인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B	$\beta$	B	$\beta$	B	$\beta$
통제 변인	부부의 연령차이	-.010	-.097	-.014	-.138	-.025	-.255*
	결혼 중개업소q 이용여부	-.573	-.437**	-.371	-.283*	-.156	-.119
남편 특성 변인	자아존중감			.409	.158	.569	.220*
	우울			-.098	-.055	.102	.057
	성역할태도			-.434	-.314*	-.367	-.266*
	다문화 수용태도			.034	.046	-.065	-.087
	자문화 전달태도			.260	.294*	.155	.175
아내 특성 변인	자아존중감					.275	.171
	우울					-.017	-.014
	성역할태도					.295	.256*
	신앙성숙도					.214	.267*
	다문화 수용태도					-.127	-.148
	자문화 전달태도					-.087	-.090
	한국생활적응					.051	.032
	결혼만족도					.313	.356*
F		6.332***		5.714***		4.935***	
R <sup>2</sup>		.247		.463		.631	
수정된 R <sup>2</sup>		.208		.382		.508	
R <sup>2</sup> 변화량		.247		.216		.168	

q 결혼중개업소 이용 여부는 더미변수이며, 기준변수는 결혼중개업소를 통해서 결혼한 경우임

\* p<.05, \*\* p<.01, \*\*\* p<.001

하였다. 그 결과 통제 변인 중에서는 부부의 연령 차이( $\beta$ =.25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 관련 변인중에서는 자아존중감( $\beta$ =.220), 성역할 태도( $\beta$ =.266)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관련 변인으로는 성역할 태도( $\beta$ =.256), 신앙성숙도( $\beta$ =.267), 결혼만족도( $\beta$ =.356)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F=4.935$ ,  $p<.001$ ,  $Adj. R^2=.508$ ). 이러한 결과는 부부의 연령 차이가 높을수록 남편의 결혼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며, 남편

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아내가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며, 아내의 신앙성숙도와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모형 3에 아내특성변인이 추가됨으로써 모형 2보다 설명력이 .168 증가하였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

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남편 특성 요인과 아내 특성 요인을 연구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의 결혼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가족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C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99쌍을 2009년 1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사하였다. 본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은 한국인 남편과 국제 결혼한 외국인 아내이다. 설문조사는 아내의 경우 본 연구에 대해 교육을 받은 한국어 강사가 한국어교실에서 집합 조사하였고, 남편의 경우는 아내를 통해 가정으로 배포한 후 회수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남편의 연령은 30~40대가 많았고, 아내는 20대가 많았다. 학력은 남편과 아내 모두 고졸 이상이 많았으며, 종교 남편과 아내 모두 무교와 불교가 많았다. 직업은 남편은 기술직, 자영업, 생산직 등이 많았고, 아내는 대부분 주부로 나타났다. 월소득은 151만원에서 250만원이 가장 많았고, 자녀수는 1명이 가장 많았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선행연구와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가족 남편과 아내의 심리적 특성 중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인은 자아존중감, 우울과 다문화 수용태도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아내와 남편 모두 중간점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아내가 남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남편의 자문화 전달태도는 다문화 수용태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 수용태도의 경우 아내와 남편 모두 중간점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아내가 남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이 아내의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다문화 수용태도보다는 한국 문화를 아내에게 전달하려는 자문화 전달태도 점수가 더 높게 나

타난 장은정(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우울의 경우는 아내와 남편 모두 중간점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아내가 남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성역할 태도, 자문화 전달태도, 결혼만족도 등은 남편과 아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태도의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중간점인 2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장은정(2007)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중간점인 3점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결혼만족도는 남편과 아내 모두 중간점이 3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장은정(2007)과 추현화 외(2008)의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의 결혼적응점수가 중간점이 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다문화 가족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한국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필리핀 아내의 결혼만족도보다 낮게 나타난 안현정(2003)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다문화 가족의 아내의 신앙성숙도와 한국생활적응의 경우도 중간점인 2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다문화 가족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변인으로는 통제 변인 중에서는 통제변인만 투입한 모형1과 통제변인과 남편특성변인을 투입한 모형2에서는 결혼 중개업소 이용여부( $\beta = -.437, \beta = -.283$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내특성변인이 추가된 모형3에서는 결혼 중개업소 이용여부 변인의 유의미성이 사라지고, 부부의 연령차이( $\beta = .255$ )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결혼중개업소의 이용여부 보다는 부부간의 연령 차이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료되지만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결혼중

개 업소 이용여부와 연령 차이 변인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남편 관련 변인 중에서는 모형 2에서는 성역할태도( $\beta=.314$ )와 자문화 전달 태도( $\beta=.294$ )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 3에서는 자아존중감( $\beta=.220$ )과 성역할 태도( $\beta=.266$ )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태도의 경우는 통제변인과 남편 관련 변인만 투입한 모형 2와 아내 관련 변인을 추가한 모형 3 모두에서 일관되게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장온정(2008)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성역할 태도를 포함하는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이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 다문화 가족의 남편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문화가족의 남편이 현대 사회에 바람직한 성역할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남편의 자문화 전달태도는 남편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장온정(2008)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통제변인과 남편관련 변인만 투입한 모형 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아내 관련 변인을 추가한 모형 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남편의 자문화 전달태도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아내 관련 변인으로는 성역할 태도( $\beta=.256$ ), 신앙성숙도( $\beta=.267$ ), 결혼만족도( $\beta=.356$ )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4.935$ ,  $p<.001$ ,  $Adj. R^2=.508$ ). 이러한 결과는 아내가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 가족의 아내가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신앙성숙도가 높을수록, 남편에게 순종하는 경향이 높아서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인 다문화 가족 아내의 특성상 많은 문항의 설문지를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가족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등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다루지 못한 점은 아쉽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은 있지만, 국내 최초로 다문화 가족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남편 특성 요인과 아내 특성 요인을 모두 연구하였다는 점에서는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공성숙(2008). 부부클리닉 방문부부의 심리적 요인이 결혼만족도 및 이혼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38(3), 550-560.
- 2) 김경신(2006). “결혼이민자가족의 수용과 정착을 위한 학문적, 실천적 측면에서의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82-110.
- 3) 김연수(2007).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 217-252.
- 4)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5) 김진희·박옥임(2008).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 비교 :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8(1), 127-160.
- 6) 김형균(2007).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와 사회적

- 통합방안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 : 부산발전연구원.
- 7) 배성우·신원식(2005). CES-D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 Depression Scale)의 요인구조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18, 165-190.
  - 8)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고서.
  - 9)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8). 출입국·외국인 통계자료.
  - 10)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서울 : 여성가족부.
  - 11) 신혜정(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안현정(2003).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양순미(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부부 중심. 농촌사회 16(2), 151-179.
  - 14) 왕한석, 한건수, 양명희(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적응실태 연구. 서울 : 국립국어원.
  - 15) 윤인진, 송영호(2008).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활모델로서의 창업 : '시민자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4(1), 25-44.
  - 16)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7) 이소희, 최운선(2008).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문화 정체감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3), 163-186.
  - 18) 이영숙, 박경란(2009). 기혼남성의 성격유형, 갈등대처방법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8(2), 275-286.
  - 19) 이영주(2008). 다문화 가족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응요인 :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3(3), 79-102.
  - 20) 이은희(200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맞벌이 남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99-119.
  - 21) 장은정(2007). 국제 결혼한 한국 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2) 전만길(2005). 외국인주부 한국생활실태조사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정기선, 김영혜, 박경은, 이은아, 박지혜, 이승애, 이지혜(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24) 정승혜(1987). 부부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정천석, 강기정(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1), 5-23.
  - 26) 정현영(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아시아 여성과 한국남성의 이중문화가정자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조유리(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8) 조은경, 정혜정(2009). 원가족 건강성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105-132.
  - 29) 최규련(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140-152.
- 30) 추현화, 박옥임, 김진희, 박준섭((2008).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4), 85-102.
- 31) 통계청(2008). 인구동태 통계연보.
- 32)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19.
- 33) Beach, S., Katz, Kim, S. & Brody, GH (2003). Perspectiv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on depressive symptoms in established marriage : A dyadic model.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 355-371.
- 34) Chung, H.(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 35) Rehman, U. S., Gollan, J. & Mortimer, A. R.(2008). The marital context of depress : Research, limitations and new direction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 179-198.
- 36) Whisman, M. A., Uebelacker, L. A. & Weinstock, L. M(2004). Psychopathology and marital satisfaction : The importance of evaluating both partner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72, 830-838.
- 투 고 일 : 2009년 7월 15일
  - 심 사 일 : 2009년 7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8월 20일